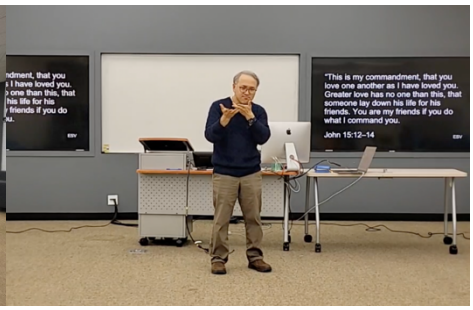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2022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끝나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음을 매 순간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가정, 교회,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며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갈로뎃대학교 캠퍼스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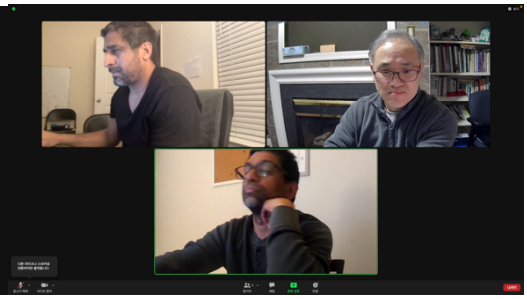
2022년 봄학기에도 정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지도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수업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브루스 목사님과 함께 매주 월요일 밤 7:30-8:30 기도회 및 교제를, 매주 목요일 밤 8:00-9:15까지 BCF 예배 및 소그룹 교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정규수업외에는 캠퍼스 안과 밖 혹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보다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나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학생이 드문 상황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7명에서 10명정도의 학생들이 목요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명 국제학생들과 영상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제 사무실로 초대하여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맛있는 간식들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시아 Lunar year 행사, 중동지역의 행사 등등 여러 특별한 행사들이 종종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국제학생들과 친교를 갖기 위해서 두 번 정도 참석했는데 학교에서는 보기 힘들고 만나기도 어렵던 학생들이 이런 사교적인 행사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을 볼 수 있음에 깜작 놀랐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큰 유행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 행사 관련 모임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시간에도 잘 오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희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매주 BCF(Bison Christian Fellowship) 목요일 예배를 진행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갈로뎃대학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농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받아 농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학생이 되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온 2명의 형제들과 성경공부





2019년 갈로뎃대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시간강사로 일하는 인도의 브라만 출신 Aju 형제를 알게되어 학교 안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며 간단히 안부만 물으며 지냈습니다. 그는 갈롯데대학에서는 시간강사로서 컴퓨터 IT

과목을 가르치면서 조지 메이슨대학교에서는 IT 와 관련된 일을 하는 Two Job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바쁘게 지내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2021년 여름 Aju 형제가 저에게 연락하여 시간되면 같이 점심식사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점심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영향을 받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왔지만 미국에서 1996년에 미국수어로 복음을 접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된 간증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였습니다. 어느 날 Aju 형제가 파키스탄 출신이며 이슬람교 가문에서 성장한 Munner 형제를 저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Munner 형제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등을 모두 다녀 본적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립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Munner 형제에 대해서 듣고 Aju 형제에게 Munner 형제랑 같이 성경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여 세 사람이 함께 작년 11월부터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8시부터 9시반까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Munner 형제가 제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여 요한복음 강해 내용들을 끝까지 잘 듣고 중간중간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교리들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면 자주 질문을 하기도 하여 관련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Munner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Munner 형제가 이해 못할 때마다 Aju 형제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보충하여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12월 중에 Munner 형제의 신앙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을만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정말 감격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 본인이 사용하는 큰 침대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모셔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에 감격했습니다. 12월 성탄절이 오기 전에 Aju와 Munner 형제가 다니고 있는 Woodbridge의 First Baptist 미국교회에서 담임목사님께서 진행하는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수고해 주셨던 통역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 요한복음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Munner 형제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Jinwen 자매와 Na Su 자매가 온라인 Zoom를 통해 토요일 오후나 주일 밤에 수시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021 추수감사행사 초대 및 크리스마스 설교







작년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와 함께 캠퍼스 팀사역을 하고 있는 Bruce 목사님이 시무하는 Table church에서 ALDI의 Geroge Yu 대표님과 함께 추수감사예배 및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갈로뎃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몇명 국제학생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식사 및 교제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긴 추수감사휴일로 인하여 혼자 쓸쓸하게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몇명 국제학생들과 직원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게임 및 수다를 갖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갈로뎃대학교 겨울방학기간동안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며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반에 College Park 지역에 있는 OBDC(Open Bible Deaf Church)에서 제가 성탄을 설교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홍콩, 대만, 중국 출신의 어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소개를 나누고 중국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




졌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다른 교회, Woodbridge에 있는 Deaf Group of First Baptist Church로 향하였습니다. Aju 형제의 부탁으로 젊은 농인들에게 아침과 같은 내용을 설교 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가운데에도 가장 기쁜 성탄절의 의미로 예배를 드린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코로나 발생후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두 교회에서 저와 제 가족을 따듯하게 맞아주시고 처음 만난 성도들과 함께 대화함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외에는 사무실, 매점/식당, 복도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가볍게 인사하면서 20분에서 40분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소개를 하면서 간단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과의 친교적인 관계를 쌓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종종 나눴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학생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학생, 두 일본 학생들, 인도네시아 학생, 중국계 미국 학생 (사진 왼쪽부터)



중국 직원, 나이지리아 학생, 멕시코 학생, 인도 학생, 이라크 학생, 일본 학생 부부, 중국 학생 (사진 왼쪽부터)

IDBS 회의 및 설립 준비

올해 가을부터 국제농아성경학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 ALDI와 함께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농인들이 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농아성경학교를 먼저 중국농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 회의를 하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지만 중국수어와 미국수어를 둘 다 하는 두 명의 강사들이 신학교 커리큘럼 자료들을 검색하며 시각자료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로 준비하여 시범적으로 먼저 두 과목을 사이버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몇몇 과목들을 추가하면서 수어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육자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강의할 계획입니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갈로뎃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 학생들과 성인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ALDI의 대표 유 대표님과 이사님들이 성경 중국수어번역과 국제농아성경학교 설립준비 및 강사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세 아들들, 현우, 현도, 현성이 세속적인 교육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확립하여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2022. 2. 23

이주영 선교사